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의안 번호	13168
----------	-------

요구연월일 : 2025. 9. 22.

요 구 자 : 이성윤 · 장경태 · 최혁진
이주희 · 오세희 · 김용민
박균택 · 안태준 · 박홍배
윤종균 · 김준혁 · 김남근
김현정 · 문진석 · 박용갑
박은정 · 조인철 · 추미애
박상혁 · 김기표 · 전현희
서영교 의원(22인)

주 문

국회의원(곽규택)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9호,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곽규택은 그동안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고성으로 인한 소란행위, 동료 위원을 존중하지 않는 반말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음. 2024년 7월 31일 정청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행위에 대해 “위원장석에서 이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명령 합니다.”라고 퇴거명령을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은 이에 “무슨 퇴거명령이야!.. 지가 뭔데”라고 반말을 하였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저에 대한 욕설과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곽규택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20여 분 후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사과 의사를 물었음에도 곽규택 위원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며 거부하였고,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받은 바 있음. 2024년 9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곽규택 위원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게 제정신인가”라고 하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모욕하였음. 2025년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위원이 고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곽규택 위원에 대해 「국회법」 제145조제1항에 의거 1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광규택 위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음. 그럼에도 계속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 중 끼어들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렸으나, 국회 경위의 퇴장 요청에도 버티고 앉아서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음. 2025년 8월 1일 이춘석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서 광규택 위원에게 1차 경고 조치를 하였음. 광규택 위원은 자신의 의사 진행 발언 순서가 아님에도 지속하여 고성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여 퇴장 명령을 받았음. 이에 광규택 위원은 “한두 번 당해봤어요, 내가?”라고 고성으로 항의하고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시에 불응하며,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음. 2025년 8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위원의 의사 진행 발언 도중 본인의 발언 순서가 아님에도 고성으로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진짜.”라며 야유를 보내고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며 김용민 간사위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방해하였음. 2025년 9월 4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광규택 위원을 지속적인 고성으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퇴장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음.

다. 국회의원 광규택은 위처럼 동료 위원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모욕적인 언동과 반말을 일삼고, 자신의 의사 진행 발언 순서가 아님에

도 고성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동료 위원의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가로막았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음. 또한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경고 조치와 발언권 중지, 퇴장 조치에도 따르지 않고, 야유와 반말을 하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은 언동을 상습적으로 해왔음. 국민의 대표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태도로 회의를 방해해오다가 급기야 동료 위원인 박지원 위원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패륜적인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음.

라. 국회의원 곽규택은 2025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던 박지원 위원에게 “박지원 위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이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박지원 위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변하였음. 국회의원 곽규택은 이에 “그렇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며 비아냥대는 발언을 하며 박지원 위원과 고인이신 박지원 위원의 배우자를 모욕하였음. 서영교 위원의 “곽규택, 실수했어”, 박균택 위원의 “너무 무례합니다. 곽 위원님, 너무 무례해요”라는 동료 위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굽히지 않았음. 이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곽규택 위원님,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곽규택 위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위 제소감입니다.”라고 제지하

였음에도 계속하여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오니까?”,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등 반복적 고성으로 응대하면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자신의 언동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

마. 박지원 위원의 발언은 나경원 위원의 배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장이므로 나경원 위원이 간사 위원에 선임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음. 그러나 박지원 위원에 대한 국회의원 곽규택의 발언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박지원 위원이 아내와 사별한 것을 알고서 발언한 것이라면 극히 패륜적인 발언이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셨다’라는 답을 듣는 순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함. 그러나 국회의원 곽규택은 박지원 위원과 고인인 배우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거듭하였음.

바. 국회의원 곽규택은 그간 지속적인 고성과 반말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온 데 이어, 급기야 국민의 대표자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언동으로 보기에다 심히 부적절하고, 사회상규에서 벗어나 선량한 일반 국민의 도의적 정서에 크게 반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음.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심각하

게 훼손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리는 방식으로 동료 위원을 직접 모욕하여 「국회법」 제146조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음.

사. 결국 국회의원 광규택의 위 발언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므로,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9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